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9.12.121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규, 조연준, 이김환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허가 제도 개선방안

03 종합

사랑에서 _ 광주폴리의 가치와 방향성
건축사 만평

04-05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2019 전남건축인의 밤' 12월 11일 목포에서 개최
전남건축사회와 광주건축사회 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전남건축사회, 광주건축사시험과 대출 지원 협약 체결

06-07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가져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10주년 기념식 및 초청강연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회원 160여 명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참가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2019 송년의 밤' 행사 오는 12월 17일 18:30 개최
전북 익산지역 채준섭 건축사 '제35회 전북대상' 봉사 부문 본상 수상
전북 전주지역 추원호 건축사, 언론사 주관 시상식서 공로대상 수상

10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수상작

11 독자광장

건축문화답사기
세상사는 느낌 _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들...
한 편의 시 _ 건축사의 역할

12 광고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신간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앨범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허가 제도 개선방안 - 55년 시행해 온 건축 인허가, 각종 심의제도 대폭 간소화된다 -



이창울 논설위원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 광주건축사회 회장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부회장
•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감사
• 건축학회, 건축정책학회,
도시설계학회, 건축가협회 정회원

우리나라의 골프, 바둑, K-pop은 세계 탑을 찍었다. 이의 공통점은 행정이 간섭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건물하나 지으려면 허가받기까지 많게는 40여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심의위원,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부정비리가 만연돼 있고 문제 제기조차 안 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발표 했다.

건축허가(建築許可, building permission)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규모로 수선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한다. 건축허가를 통한 건축행위 금지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하려는 공공적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 및 주변 환경의 영향 가능성에 따라 규제 대상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건축 행위의 제한은 공익을 실현하고 건축의 공공적 성격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목적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반면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과도한 제한행위는 국민 고충을 발생시켜 지속적인 민원의 원인이 되어 결국 행정력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시간지연 및 불필요한 경비 발생 사례는 국민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건축 인허가제도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건축물 확보'라는 종합적 차원에서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 : 공공성

건축공간의 공공적 가치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관계성에 기초한 도시공간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따라서 공공성의 구현은 기존의 제도적 틀을 개편하여 도시건축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 인허가제도 수립 : 합리성

현대의 건축산업 생산체계는 고도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 공정별 단계화가 진행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인-허가제도는 개발경제시대의 「건설산업기본법」 근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 생산체계와 인허가제도의 불일치는 중복심사, 자연심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선진화된 생산체계에 부합하는 심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건축물 성능향상을 위한 분야별 책임성 강화 : 전문성

건축생산체계의 고도화는 건축성능에 밀접하게 관련된 구조, 환경 설비 등 분야별 전문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갖춘 분야별 설계 및 공사의 당사자들이 계약의 주체가 되고, 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관리 당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문화된 건축공사의 전반을 이해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행정인력의 양성과 채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을 국내 인허가 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도시설계와 건축설계의 위계가 명확한 인허가제도 구축

현행 건축인허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은 도시-건축허가와 건축물 성능 허가의 제도적 분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이해가 관계하는 도시-건축적 차원의 계획수립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계획수립이 중요 업무인 도시-건축 단계에는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청회,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심의제도가 필요하다. 반면 실행업무 위주의 건축 단계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성능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영역의 체계화된 정량적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는 종합적 계획수립의 관점에서, 건축물의 공사는 실행적 관점에서 분리하여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은 선진 각국의 공통적 경향이다.

2. 심의제도의 전면 폐지와 정량적인 확인절차 도입

건축물 심의 및 인증의 주요 관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성능이 충족되었는가를 관리감독하고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건축물의 성능 평가기준은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표준지표로서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구조, 설비, 친환경 등 기술적 성능기준은 공공에서 정한 객관적 표준과 지표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건축기본법」에 명시된 '한국건축규정'의 운용을 통하여 해결 가능하므로, 신속한 '한국 건축규정'의 제정 및 운용이 요구된다. 건축물 성능평가의 절차 및 기준은 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니므로 **현행 건축물 심의제도는 전면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건축물 성능평가 업무는 그 절차 및 방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는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공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해진 성능기준 및 절차의 제시로 빈번한 민원에 대처가 용이하여 행정 부담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3. 건축신고 제도 확대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성능은 법규에 정해진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되었는가의 확인에 불과하다. 반면 준공 후 평가는 건축물 성능검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임

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허가제도 하에서는 충분히 점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제도운영의 주요 원인은 건축업무의 단계와 각종 심의 및 인증제도 운영의 불일치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성능평가는 준공 후 계획된 품질이 충족되었는가를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획단계에서는 설계에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신고 등의 절차로 간소화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공공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다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는 허가제도를 '허가', '간단허가',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인허가 관련 건축법의 전국단위 일관성 확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건축기본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동일한 품격과 품질의 건축물을 영유할 권리가 있다. 건축물의 품질은 객관적 성능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으로서 이는 지역과 도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동일한 인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해 규정하며, 그 외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건축소례로 정하여 심의하고 있다. 상기 시행령 8목에서 정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장은 그 용도와 규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지자체는 전국12곳의 광역지자체 및 77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 그 결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임의로 확대 또는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상기 위임조항은 향후 모법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령개정의 전제조건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물 성능평가의 기준으로서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의무를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성능평가의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건축신고제의 도입, 건축심사의 폐지 및 성능평가 중심 허가제도 운영은 건축사가 계획단계에서 설계한 건축물의 성능을 완전하게 구현한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계획성능의 구현 의무에 대한 책임과 처벌조항을 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전문분야별 책임성을 강화하는 건축 계약체계 개선

현행 국내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사는 계약의 주체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업무를 조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체계는 건축사와 관계 전문분야의 분담이행방식 혹은 하도급 관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현재 국내 건축업무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구조, 환경, 설비 등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의 업무를 모두 건축사에게 일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질의 건축물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현 계약체계 개선을 통하여 위험을 조절하고 분배하여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전문 업무수행 주체와 계약주체의 불일치는 결국 위험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며 건축물의 품질확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건축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험의 분배 및 균형을 조율할 수 있는 선진적 계약방식의 마련이 시급하다.

6. 공공에 의한 전문분야 품질감독제도의 도입

건축물의 품질성능 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요인이므로 공공적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감리제도는 「건축기본법」에 정의한 '설계제도 구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건축사의 설계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감리와 건축물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어 업무상 혼선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품질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건축물이 건축가의 의도에 부합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감리는 건축주 및 건축사의 계약관계로서 설계제도 구현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축물 성능평가는 공공기관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담당자에 의하여 관리-감독되어야 하며, 이를 다양한 형태로 민간에 책임을 위임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안전성능관리 전문분야별 품질감독제도의 도입을 통한 감리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품질감독의 수행주체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품질감독제도의 도입은 감독담당자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고도화된 한국의 건축업무 현황을 고려할 때, 향후 품질감독관 제도의 도입 및 건축공정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일선행정인력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건축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허가와 관련해 우리처럼 불허(不許)를 전제로 하는 나라가 없다.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허가가 나기까지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7단계 절차를 거쳐 최소 425~480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심의 및 인증 절차가 너무 많다. 건축사가 법규를 지켜 도면을 그리고 허가를 진행해달라고 신청하면 공무원이 아니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가가 법규를 준용했는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는 식으로 절차를 바꿀 계획이다.** 허가제가 신고제가 되는 거다. 법규를 벗어난 건축 계획에 한해서만 특별위원회를 열어 허가를 받으면 된다. 건축 설계 디자인 수준은 이미 세계 탑을 찍었다. 건축 인허가제도 개선 방안의 최종용역 보고서를 요약하여 제안한다.

사랑에서 _ 예순한 번째

광주폴리의 가치와 방향성

지난 10월,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폴리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과연 어떤 심산일까?

광주폴리는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됐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투리 공간과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거장 건축가들의 작품을 유치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광주폴리의 취지이자 목표였었고, 10년 동안 100개의 작품을 설치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까지 있었다. 쉽게 말해, 광주에서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을 다수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주를 건축문화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이해했을 정도다.

1차로, 광주의 역사성과 쇠락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옛 광주읍성터에 10개가 들어섰고, 푸른길에도 설치됐다. 프로젝트 참여자도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건축가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짧은 준비기간과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인해 시민과의 소통 부족과 공간에 대한 해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한 점을 반영해 2012~2013년의 2차 프로젝트는 '인권과 공공공간'이라는 주제로 광주의 정체성과 공간개념을 고려한 작품이 선보였다. 하지만 1차 폴리에 비해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견제 세력들에 의해 건축가의 참여 비율도 낮아졌고, 작품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으며, 너무 외진 곳에 자리를 잡아 관심을 끌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14~2016년 진행된 3차 광주폴리는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을 주제로 11개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과 접목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고, 도시의 맛과 멋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폴리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는 4차 프로젝트인 관문형폴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광주폴리 전면 재검토'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광주폴리의 첫 시작은 매우 창대했다. 광주를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 전시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화예술의 도시에 아주 걸맞은 콘텐츠의 발굴이었다. 게다가 관광산업 촉진, 건축 수준의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한 효과는 거장 건축가의 작품 소재지에서 이미 검증되었고, 지금까지 설치된 30여 개의 광주폴리에 의해서도 다소나마 확인되고 있다. 국내 건축인들과 건축 관련학과 학생들은 일부러 찾아오기도 하고, 타 도시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광주를 방문하기도 하며, 외국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 번 직접 확인했을 정도다. 또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7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및 2019 아시아도시경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쉬움이 더 많다. 초창기의 시행착오도 아쉬웠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반목과 시기 그리고 무관심은 당초의 취지를 변질시켰고 연속성과 지속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지금은 존재여부가 아니라, 초심을 되살리고 그간의 과정을 점검 및 평가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살려 품격 있는 문화광주를 만들어 가는 데 이보다 더 안정맞춤인 문화콘텐츠가 얼마나 될까?

자문위원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본석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전담기자 박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편집위원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설혜순, 이원규, 정영진, 임현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주)경서/EQ구조엔지니어링(주) 500,000원
- 사단법인한국환경건축연구원 350,000원
- (주)대광판넬 350,000원
- (주)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이본석 법률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광고 및 구독신청

- 후면 전면광고: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700,000원
- 하단광고: 350,000원
- 하단1/2광고: 200,000원
- 구독료: 20,000원/1년
- 구독료임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탁 131-009-471898

문의 | 1855-2240



화재 NO · 단열 YES

준불연가등급

DK본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넬용(나등급)

DK보드는 독일 BASF 네오폴(비드법2종)에 특수 난연코팅과 난연액도포를 통해 탄생한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4 W/m·k 이하
- 친환경 수성

www.dkboard.kr

DK | 주대 광 판 넬 | 주디케이보드

(주)여수예술랜드리조트

김용균 건축사 / 유로 건축사사무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2, 3층
Tel. 061-695-3127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245 외 17필지 / 대지면적 : 68,721.0㎡ / 건축면적 : 10,845.23㎡ / 연면적 : 17,622.23㎡ / 건폐율 : 15.78% / 용적률 : 23.43%
주용도 : 숙박시설(생활형),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규모 : 지하 2층, 4층~1동, 2층~4동, 3층~8동, 4층~4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여수의 수려한 해양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SITE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설계하고자 하였다. 각 숙박동은 섬, 바다, 하늘을 향하고 있고 이 건축물들은 획일적인 선들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선들이 교차하는 느낌을 살리고자 입면을 계획하여 이용객들이 해양경관뿐 아니라 독특하고 재미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구경하는 재미를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넓은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수목들을 식재하여 기존의 경관을 보존하였다.



배치도



#아키디자인 2020 정식출시 업데이트 알림

New ArchiDesign 아키디자인 2020 정식출시

9월25일 새로운 아키디자인 2020이 정식 출시했습니다!

구매문의 1899 - 9260

자세한내용은 www.midasCAD.com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IDAS | MIDAS ARCHIDESIGN



1 건축설계특화 편의기능 추가 (창호, 계단, 단열재 등)

2 Dwg 공동작업자를 위한 협업기능 강화

3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속도와 강력한 파일복구 기능

전남건축사회, '2019 전남건축인의 밤' 지난 12월 11일 목포에서 개최
 현대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건축사 윤리교육도 진행, 회원 150여 명 참석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행사를 지난 12월 11일 전남 목포 현대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하여 내외빈 및 전남 지역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전남건축인

의 밤'을 개최했다.

본 행사에 앞서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전주대학교 명혜영 교수의 '몸의 범주화와 윤리학'이라는 주제로 윤리교육을 진행했으며 해당 교육에 참석한 건축사는 윤리교육 1시간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오후 5시부터 기념식과 공로패 수여, 감사패 수여, 장학증서 수여, 공연, 리셉션, 건축계 현안 담화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올해 도회 발전에 기여한 정정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정원)와 범정 건축사(범 건축사사무소), 정용재 건축사(태진 건축사사무소) 등 3명에게 공로패와 목포대학교 이정윤 학생, 초당대학교 위형주 학생, 순천대학교 이윤석 학생, 전남도립대학교 정지우 학생 등 전남지역 건축 관계학과 우수대학생 4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남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건축인들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남건축사회와 광주건축사회 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 11월 12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전남건축사회와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1월 12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안전보건공단 광주·전남본부와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핵심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전남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전남건축사회와 광주건축사회 외에도 대한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를 포함 지역의 건축, 건설 관련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과 광주건축사회 강석훈 부회장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등 각 기관 단체장들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에는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협조와 참여, 회원사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자료 공유 등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사들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과 소규모 건설·건축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연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건축, 건설 현장 내 사고사망자 감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회원 모두가 적극 협력할 것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건축사회, 광주건축사신협과 대출 지원 협약 체결

지난 12월 3일 광주건축사회 회장실에서... 회원들에 대한 대출 서비스 제공 위해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12월 3일 광주건축사회 회장실에서 광주건축사신협과 전남지역 회원에 대한 대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연준 회장과 광주건축사신협 강현구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전남 회원에 대한 대출 지원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협약서에는 광주건축사신협이 전남건축사회원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조연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남 회원들에게 원활한 대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출관련 사항은 광주건축사신협(T. 062-527-8890~1)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전남건축사회,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참관

지난 11월 27일 서울 코엑스에... 도회 회원 150여 명 참가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0여 명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되는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도회 회원들은 본대회인 개회식과 강연회에 참가했으며 이번 대회와 함께 개최된 한국건축산업대전 2019에도 참가했다. 한편, 이날 대회 참관을 위해 전남건축사회에서는 참가지원금을 각 지역별로 지원했다.

무안지역건축사회, 주거 취약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진행 완료

지난 10월부터 무안군 현경면에 위치한 노후된 2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업...



무안지역건축사회(회장 정정진)에서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안군 관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12월 초 현재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당 사업은 전남건축사회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노후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아늑한 주거 공간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무안군 현경면에 위치한 노후된 2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재단장하게 하였다. 곰팡이로 얼룩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1가구에 단열재, 도배, 장판 등을 새롭게 교체하였고, 다른 1가구에는 마루와 창호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정정진 회장을 비롯한 무안지역 건축사회 회원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추운 날씨에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서의 나눔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봉사가 되었다"고 밝혔다.

여수시, 국지도 22호선 및 해안가 '경관지구 지정'

돌산·소라·화양·화정 8개소 290만㎡... 건물 높이 및 공장 등 입지 제한

여수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로 여수시에 있는 수변축 대부분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될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화양면 용주~호두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슬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돌산읍 계동 해안가 ▲돌산읍 방죽포~소울 해안가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3층, 12m 이하로 한정되고, 자연순환 시설, 공장, 묘지 관련 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여수시는 12월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해 경관지구 지정을 발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국지도 22호선과 해안 수변축 일원 559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 이상 앞당겨 해제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밤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내 해안 수변축 일원을 특화·시가지경관지구와 고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김선태 건축사 / 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67, 2층
- 서란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란 / 전남 여수시 시청로 67, 2층
- 박종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원 / 전남 여수시 시청서5길 11, 3층

• 변경(소제지)

- 이창국 건축사/ 창조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교육로 17, 2층
- 손주열 건축사/ 삼보 건축사사무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72-1, 103호
- 백진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진 / 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34-1

J-dam

허만수 건축사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일곡로41번길 35, 1층
 Tel. 062-573-3001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1032번지 / 대지면적 : 418.40㎡ / 건축면적 : 240.79㎡ / 연면적 : 673.46㎡ / 건폐율 : 57.55%
 용적률 : 160.96% / 규모 :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Thk30 사비석잔다듬, 스타코



광주건축사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가져

13일 북구 중흥1동에... 오는 20일에는 남구 방림2동에 전달, 총 180포대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12월 13일 북구 중흥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쌀 10kg짜리 90포대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강현구 회장과 건축사회 임직원, 해당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 소감을 밝히고 쌀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현구 회장은 "이와 같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0일에도 남구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쌀 10kg짜리 90포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매년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나눔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 김장김치 및 연탄 전달, 육아원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배식봉사, 장애인단체에 사회복지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10주년 기념식 및 초청강연회 개최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부터... DJ센터 208호에서 조원용 건축사 강연



광주건축사회와 전남건축사회, 전북건축사회가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과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의 2019년 제16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연계사업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주식회사 창의체험 대표이자 다이아몬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인 조원용 건축사를 초청하여 '생활 속 건축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조원용 건축사는 건축과 인문학을 접목한 책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의 저자이며, KBS2 TV특강, EBS 특강, KBS 아침마당 목요특강, KBS 여유만만 건축인문학 특강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건축'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한 건축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기념식에는 공로패 시상 및 창간 10주년 기념북 전달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건축사에게는 자기 계발 1시간 교육 시간 인정이 된다.

한편, 당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해당 강의실에서 마이더스 카드 프로그램설명회가 개최된다.

신속하게! 대출도 실험이 어부바 해드립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한 대출 서비스

내집마련 주택자금대출, 사업장 구입자금대출, 1인당 **최고 1억5천만 원**(타행 포함) 신용대출까지

아파트담보
대출

부동산담보
대출

신용대출

광주건축시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실험에 가면, 금융생활이 더 특별해집니다.



두 아이와 함께하는 주거이자 남편의 꿈을 담은 공간이자 아내의 삶을 담은 미래가 되는 제이담. 일터인 카페와 가족의 삶을 담은 주거가 복합된 제이담은 각 층마다 공간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외부 마당공간이 있어 카페를 찾는 손님, 그리고 두 아이에게 재미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광주건축사회 회원 160여 명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참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원주 등 건축물 답사 진행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 160여 명은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된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참관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축물 답사에 나섰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본대회인 개회식과 강연회 및 한국건축산업대전 2019에 참관하고, 둘째 날인 28일에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안도 다다오의 설계 작품인 '뮤지엄산'과 여주시에 위치한 '여주박물관'을 답사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이번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며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서대석 서구청장과 간담회 가져

지난 11월 26일 서구청장실에서... 공무원들의 건축 민원응대 태도 개선 요청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이 지난 11월 26일 광주 서구청 청장실에서 서대석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축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건축사회에서 강현구 회장을 비롯하여 이경행 부회장, 양동희 사무처장이, 서구청에서는 서대석 서구청장과 김형환 건축과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강현구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구청 공무원들의 민원응대 불친절 사항에 대해 개선 요청 및 직원업무처리역량 향상에 대해 적극 건의하였고, 서대석 청장으로부터 개선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이 밖에 건축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앞으로도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회원들로부터 접수받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국제위원회, 일본 후쿠오카회와 교류 협의차 방일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20주년 기념 소책자 발간 및 기념회 개최 협의



광주건축사회 국제위원회는 일본 JIA후쿠오카회와 교류 협의를 위해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심상봉 국제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영법·장성문 국제위원, 양동희 사무처장으로 구성되었으며, JIA후쿠오카지역회 사사키 토시히사 회장을 비롯하여 JIA큐슈지부 다

나카 야스히로 부지부장, JIA후쿠오카지역회 타지마 전임회장과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기념식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교류 기념 방식에 대해서는 기록물 책자 발간 후 기념회를 개최하여 기존 교류 방식을 매듭 짓고, 이후 교류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젊은 세대 위주로 진행하며 그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일본 후쿠오카회와 1999년 일본후쿠오카회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상호 작품 출품 및 교차 방문 형식으로 교류를 진행했다.

국건위, 총괄건축가 제도 호남권 설명회 광주에서 개최

지난 12월 6일 광주 시청 무등홀에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의문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8일 지역 공공건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2월 1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호남권 설명회가 지난 12월 6일 광주 시청 무등홀에서 개최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 박사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및 총괄건축가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국건위 조관우 사무관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소개, 광주시 함인선 총괄건축가와 영주시, 서울시 관계자의 총괄건축사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건축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에서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한 반면, 실질적인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총괄건축가 제도의 확산을 위해 올해 광주 등 8개 지자체에 한 곳당 제도운영비용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군·구 5곳에 한 곳당 5천5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초 지자체 5곳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가가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곳당 2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국토부는 내년도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배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김종원 건축사 / 들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남문로693번길 11, 상가동 204호
 - 심상철 건축사 / 이소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하남대로 670, 5층 503호
 - 박항수 건축사 / 차오름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경열로 20, 3층
 - 이영선 건축사 / 아현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월산로 189
- **결혼**
 - 이재운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영조 / 장남 결혼 - 12월 21일(토) 오후 1시
- **부고**
 - 광승동 건축사 / 엘.드림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1월 19일(화)
 - 심호선 건축사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선 / 모친상 - 11월 28일(목)

전북건축사회, '2019 송년의 밤' 행사 오는 12월 17일 18시 30분 개최
전주 오펠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앞서 오후 5시 10분부터 윤리교육도 진행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오는 12월 17일 오후 6시 30분 전주 오펠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2019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이전 송년의

밤 행사에 비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행사에 앞서 오후 5시 10분부터 윤리교육이 진행되는데 '건축과 직업윤리'라는 주제로 이길환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전북건축사회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북 회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석을 바랐다.

전북 익산지역 채준섭 건축사 '제35회 전북대상' 봉사 부문 본상 수상
지난 12월 4일 전북일보사 발표... 시상식은 오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익산지역 (유)보람 건축사사무소 채준섭 건축사가 전북 일보사와 에이치에스그룹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35회 전북대상' 봉사 부문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2월 4일 전북일보사는 사장실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교육·산업·예술·체육·봉사 6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학술 부문의 이중희 전북대 교수(BIN융합공학과)가 차지했다. 본상에는 봉사 부문에 채준섭 건축사를 비롯하여 교육 부문에 송일섭 완주 구이중학교장 등 총 6인을 선정했다.

특히, 채준섭 건축사는 최근 4년간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국가정책발전과 국민권익 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한 16년 7개월간 대장을 11년째 수행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특정관리대상건축물 및 공사현장에서 '함열 농협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을 유도하는 등 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가정을 비롯한 기관·단체 등 취약계층에 대해 건축사로서 재능기부를 펼쳐왔으며, 이 밖에도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장을 5년(2008~2012)간 활동하며 시민권의 구제에도 앞장섰다.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500만 원과 상패가 주어지며, 본상 수상자들에게는 각 상금 3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전북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4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린다.

전북 전주지역 추원호 건축사, 언론사 주관 시상식서 공로대상 수상
지난 12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등단 시인이자 서예가로서 활발한 활동에



전북 전주지역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추원호 건축사가 지난 12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주재 새한일보·창사 16주년 기념 새한의정·공직 공로 대상 시상'에서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선출직 국회의원과 공직자, 각 분야별 공로자들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로 뽑혔다. 추원호 건축사는 등단 시인이자 전주안디옥교회 시무장로, 그리고 진안 출신 진안군 향토 예술가다. 또한 전북미술협회 초대작가 출신 서예가로도 활동 중이다.

군산시, 제5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수상작 선정, 발표
금상에 장미동 '군산상공회의소' 등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선정



군산시는 지난달 '제5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등 선정된 총 4점의 우수건축물을 지난 12월 9일 발표했다.

금상에는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디자인과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업무문화복합시설 '군산상공회의소'(장인 건축사사무소·군장종합건설)가 선정됐다.

은상에는 조촌동 '다이나믹 큐브'(건축사사무소 포심·효창건설), 동상에는 경장동 '세아베스틸복지센터'(다원그룹 건축사사무소·신우종합건설)와 미장동 단독주택인 '꿈꿀 수 있는 家'(태백 건축사사무소)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건축문화상 출품작들은 이달 초 시청 시민갤러리에 전시됐으며, 선정된 우수건축물 관계자에 대해 소정의 시상금과 상패를 수여하고 건축물에는 인증 동판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상상 Skinny Houses 1,2,3

정창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8
Tel. 063-226-4277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50, 250-2, 250-3번지 / 건축면적 : 80.00㎡, 80.00㎡, 80.60㎡
연면적 : 171.28㎡, 171.28㎡, 172.48㎡ / 용도 : 다가구주택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주요 마감 : 스테코플렉스

한편,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건축인 발굴을 위한 이번 군산시 건축문화상에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 승인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14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정읍지역건축사회, 정읍시청 1층에서 '건축 민원 상담실' 지원 나서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건축사가 직접 전문 분야 상담 진행



정읍지역건축사회가 시민들에게 탄탄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정읍시가 지난 12월 2일 시청 1층 종합민원관에 '건축 민원 상담실'을 설치했는데 이에 공무원과 합동으로 민원 상담 지원에 나선 것이다.

'건축 민원 상담실'은 이달 13일까지 2주간

운영될 예정이며 상담실에는 시 담당자와 정읍지역 건축사가 상담을 맡았다.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건축 과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안내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무허가 축가 양성화에 대한 적법화 추진 절차·방법·인허가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또,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 관련된 건축물 상담도 진행했다.

한편, 정읍시는 건축 행정 건실화를 위해 매년 시청 1층 종합민원관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 2020년 슬레이트철거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축사·창고 등 비주택 대상 철거 신규 지원

전라북도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 피해 예방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된다고 밝혔다.

도는 2012~2021년까지 22,500동 철거를 목표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9년도 목표(2,219동) 대비 91%(2,009동)를 철거해 2019년 9월까지 총 16,852동(75%)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슬레이트 주택으로 한정됐던 철거지원대상을 철거가 시급한 비주택 건축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도가 지속적으로 철거지원 대상 확대를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2020년부터 철거지원 대상이 소규모 비주택까지 확대되어, 2019년 대비 47억이 증액 된 총 120억 원 규모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2020년 추진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20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대상 확대에 철거가 시급한 소규모 창고·축사까지 철거함으로써 석면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지붕개량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비용부담까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구 본관 등 3건 문화재 동시 등록...

문화재청, 지난 12월 9일 최종 등록 확인...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체계적으로 보존 나서



전북대학교 '구 본관'과 '구 문리과 대학', '구 중앙도서관'이 문화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2월 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등록문화재 제765호 '전북대학교 구 본관'은 전북대학교의 상징적인 건물로 중앙 출입구 포치(Porch : 지붕이 돌출돼 지어진 건물 출입구나 현관)의 돌기등을 중심으로 입면의 대칭성을 강조, 고전주의 건축에서의 외관과 장식을 단순화하고 간략화하는 등 모더니즘의 건축적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등록문화재 제766호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대학 강의실의 실용적인 목적이 강조된 건물로 모더니즘 건축 특징이 잘 표현돼 있다.

특히, 중앙 출입구 포치와 파사드(Facade, 건축물 외벽)의 수직·수평적 분할, 과감한 블록 처리 등 희소성 높은 조형적 요소를 지녀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등록문화재 제767호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은 전체적인 입면 구성 방식 등에서 석조건축의 특징이 잘 표현돼 있는 동시에 최초 중앙도서관으로 건립됨에 따라 수장고 등 공간구성이 기능에 맞게 계획·시공돼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된 3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회원동정

• **변경(상호)**

- 박진만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원 → (유)장원종합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전형직 건축사 / 동서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92
- 이동인 건축사 / 바오밥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54
- 김명국 건축사 / K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내원당길 69-1
- 오경택 건축사 / AUD 건축사사무소 / 전북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15

•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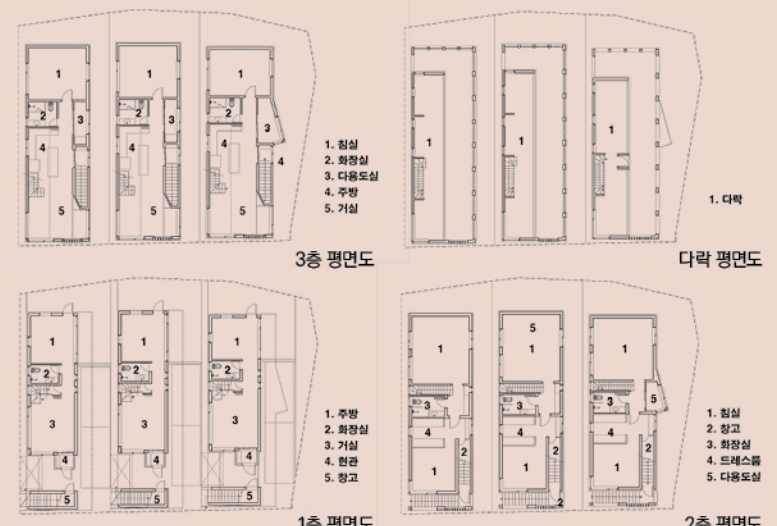
- 이규태 건축사 / 금성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12월 21일(토) 14:20

• **부고**

- 이영교 건축사 / (유)조형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1월 10일(일)
- 이정복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필 / 빙부상 - 11월 25일(월)
- 이현근 건축사 / 진영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1월 27일(수)



송천동의 상상 Skinny Houses 1,2,3은
 첫째, 경제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현재의 아파트 및 원룸의 주거 대안
 둘째, 다양하고 예쁜 주거 공간
 셋째, 중산층, 은퇴 후에 적합한 경제적 수입이 발생하는 자산으로서 주거
 넷째, 3세대 동거형 주거를 실현할 방법이 없는가로 출발하여, 협소주택의 형태를 고민하게 되었고, 전주에서도 땅 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주거 형태로 정착가능한 모델이라고 판단하여 시도한 주택이다.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수상작



비주거 부문 은상 '힐사이드 양림'

설계자 : 박홍근 건축사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손영석 대표 (주)한가람건설

양림동은 500년 이상의 마을 역사와 더불어 두터운 지문(地文, Landscript)을 가지고 있다. 건축주는 이곳에 본인들이 거주할 주택을 지을 생각이었으나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음료와 수제 제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바뀌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사용자들에 의해 완성되어갈 이곳은 일상에 색다른 변화를 주고, 주변 풍경의 일부가 되어 또 다른 장소가 되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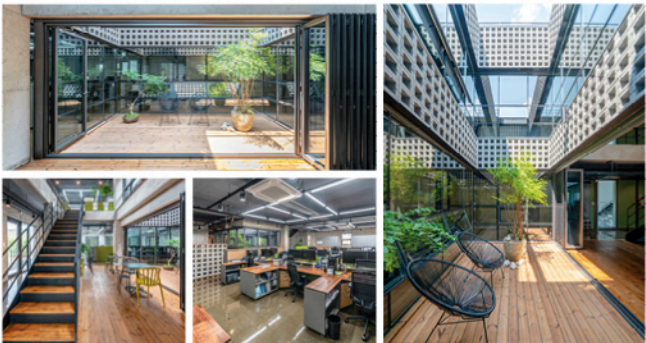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396번지 / 대지면적 : 185㎡ / 건축면적 : 108.26㎡ / 연면적 : 328.65㎡ / 건폐율 : 58.52%
용적률 : 130.63%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전벽돌, 노출콘크리트 외

비주거 부문 동상 'Bldg. REGAON'

설계자 : 이현조 건축사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정삼규 대표 (정도산업건설주)

도시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계점에서 상업건축으로서 드러나기보다 주변과 어울리는 심플한 형태와 통일된 입면 재료를 통해 정체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큐블릭을 통한 메인 파사드는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를 연결함과 동시에 차단하는 필터의 역할을 하며 디테일한 큐블릭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경관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68-5 / 대지면적 : 642.00㎡ / 건축면적 : 262.72㎡ / 연면적 : 864.25㎡ / 건폐율 : 40.09%
용적률 : 134.62% / 주용도 : 제1-2층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스타코플렉스, 큐블릭

비주거 부문 동상 '마룩공간'

설계자 : 고경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시공자 : 이현철 대표 (건우건설)

- 건축공간 - 건축물, 야생화중정마당, 주차공간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강석으로 마감된 길을 따라 야생화마당, 수공간, 백석산 풍경을 바라보며 건축물을 접근하도록 만들어진다.
- 야생화 중정마당 - 정원은 높낮이가 다른 건축물 내부에서 바라볼 때 자연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백석산과 연결되어 녹색 공간을 더욱 확장시켜준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마룩동 97번지 / 대지면적 : 1,091㎡ / 건축면적 : 389.87㎡ / 연면적 : 765.15㎡ / 건폐율 : 35.7351%
용적률 : 70.1329%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자연석, 송판노출콘크리트, 목재, 대리석 외



자연, 상생의 건축

다양하고 새로운 건축문화가 생겨나는 도시에 자연과 건축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 많은 사람은 쾌적한 공간에서 일하며 자연과 함께 공존하게 되기를 바란다.

건축문화답사기 _ 양민희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학생들 중국 상하이로 건축답사를 떠나다.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에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 상해 답사를 다녀왔다.

첫째 날은 동방명주와 상하이타워들을 바라보며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밤이 아플 때쯤 와이 탄에 도착해서 유럽식 건축물을 바라보았다. 중국이 아닌 유럽에 와있는 기분을 느꼈을 때쯤, 황푸강 근처에 올라서고 감동적인 장면을 경험

하였다. 상하이 와이 탄부터 고개를 돌리면 동방명주와 상하이타워들은 황푸강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미래가 동시에 있는 듯한 장면을 마주 할 수 있었다.

첫째 날의 감동도 잠시 둘째 날에는 교수님을 따라서 상해SOM을 방문하였고, 상해SOM에서 하고 있는 설계 과정을 듣고 친환경적인 건축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SOM 방문으로 저학년들은 저마다의 꿈이 생겼고 지쳐있던 고학년들은 목표에 대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었다. 저녁에는 신천지를 방문해서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각자 쇼핑 혹은 커피나 맥주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셋째 날은 오피스와 백화점을 결합한 형태의 여러 건축물들을 방문하였는데 특히 상해 LABENUE 건축물과 1933노장방 건축물이 기억에 남았다.

LABENUE 건축물은 비선형의 형태와 천장과 오피스와 결합되어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1933노장방 건물은 옛 도살장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지금은 극장이나 스튜디오, 상점들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엔 박스 형태의 매스였는데 들어가 보면 특이한 동선과 곳곳에 디테일함이 묻어나오는 건축물이었다. 으스스하기도 하면서도 이곳저곳 궁금증이 생기는 곳이었다.

저녁에는 예원을 방문해서 한국의 한옥마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곳곳에 있는 돌이 자연에 의해 깎인 양저우들과 처마가 끝에 올라가 있는 곳곳에 마주한 신과 용의 조각상들을 마주하니 중국 영화 속 한 장면에 온 것 같았다.

야경의 예원을 뒤로하고 중국답사를 마쳤다. 학생들은 3박 4일 동안 매일 3만 보나 걸었다는 것이 다 잊혀질 만큼 배울 점이 많았던 건축답사였고 지쳐있는 학교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세상사는 느낌 _ 김영란 독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들...

우리 동네 2차선 도로 옆에 10평 남짓한 작은 집이 있다. 그곳에는 칠순이 넘은 할머니와 10살 남자아이가 살고 있는데 매년 겨울만 되면 주변에서 기부를 하고 사진을 찍어가려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다. 물론 그 도움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가끔은 너무 형식적인 기부 행태로 두 눈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어느 방송에서 이름 모를 분들이 소중한 곳에 써달라며 기부를 하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며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 반짝의 도움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또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눈이 쌓이기 시작하고 도로가 얼면 청소부,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등 공공의 업무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한다.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싫은 계절이 아닐까?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작은 친절을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지...

겨울이 오면 우리의 마음에는 봄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한 편의 시 _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룸

건축사의 역할

건축은 우리의 삶을 창조한다
물질적 요소인 건물은
공간을 확정짓고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을 만드는 자는
건축설계하는 건축사이며
건축사의 직능은
삶의 공간을 확정하고 구획한다



건축사는 새로운 건축주
새로운 땅과 새로운 환경에 무시로 접하는 전문직이다

건축사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삶을 재구성하고
구획하는 공간 창조자이다

그래서 늘 새로움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자신의 고집된 영역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경계 밖으로
과감히 추방해야 한다

이천년 전 예수님도 그랬다
스스로 광야의 길을 걸었고
유대교의 관습을 비판하고
로마총독의 권위를 타파했으며
소외된 자들과 약한 자를 껴안고 사랑과 평화를 전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야로 추앙할 때 스스로 십자가에 못박혀
고독하게 돌아가셨다

건축설계하는 건축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해
진실하고 엄정해야 한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주려야 한다

건축사는 건물주의 삶에
운유하고 공활해야 하며
청결하고 화평케 해야 한다

모든 사물에 박식하기 위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건축사는 광야에 홀로서서 새로운 세상을 직시하는
성찰의 삶을 지녀야 한다.

designed by macrovector / Freepik

“인간·환경·기술이 하나되는 친환경 건축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광주분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3, 휴먼빌딩 618호
T. 062)385-5053 F. 062)385-5054

본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 907-912호
T. 02)558-8123 F. 02)558-8124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1405호
T. 051)745-9191 F. 051)745-9195



연구 업무

- 스마트건축·도시연구
- 건강건축연구(WELL Building)
- 유니버시티디자인·고령자주거연구
- 제로에너지 건축연구(ZEB)
- 건축환경 및 성능연구
- 건물에너지진단 전문기관
-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

www.kriea.re.kr

공제조합의 발전이 협회를 풍요롭게 합니다



“ 손해배상공제 가입 후 공제사고 발생 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는 구상권 청구 없음
협회와의 화합과 상호발전을 위한 상생협의회 운영

공제료 10% 추가 시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적산, 토목 등의 업무도 배상 가능 ”